

# 2017년도 PERC 아시아부패지수 발표결과 보고

※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지문공사) : 홍콩소재 기업컨설팅기관

(’17. 3. 29, 청렴조사평가과)

##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17.1. ~ ’17.3.
- 조사대상 : 아시아 16개국(미국, 호주 포함)에서 일하는 기업경영인(외국인 포함)
- 설문내용 : 당신이 일하는 국가의 부패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0~10점, 높을수록 부패)

## □ 결과 및 순위

- ’17년 우리나라는 **6.38점**(전년 대비 0.21점 악화), **8위**(전년 동일) 기록  
※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는 전년과 동일(1위 싱가포르, 2위 호주, 3위 일본순)

〈 한국의 PERC 아시아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점수	5.65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b>6.38</b>
순위/대상	7/16	7/16	6/16	9/16	11/16	10/17	9/16	9/16	8/16	<b>8/16</b>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 □ PERC의 한국에 대한 논평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기업 투명성 제고, 반부패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 (긍정답변 예시)

- 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 부처의 중하위 직급 공무원들의 부패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음
  - ② 최근 일련의 스캔들로 인해 다음 정부가 강한 개혁 압박을 받을 것이며,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 대기업 간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

- '16년 10월이후 언론 헤드라인을 통해 부정적 뉴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부패인식이 나빠짐

※ (부정답변 예시)

- ① 거대 기업과 정부 간의 연줄 문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국민들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② 삼성 관련 재판은 재벌 수장이 회사에서 지위 유지와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뇌물을 이용해 왔는지를 보여줌
- ③ 검찰과 법원은 부패한 주요 회사 임원들을 처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④ 한국은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문화의 일부가 되어 왔으며, 정부가 금품 수수의 한계를 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불확실함

□ **부패인식지수(CPI)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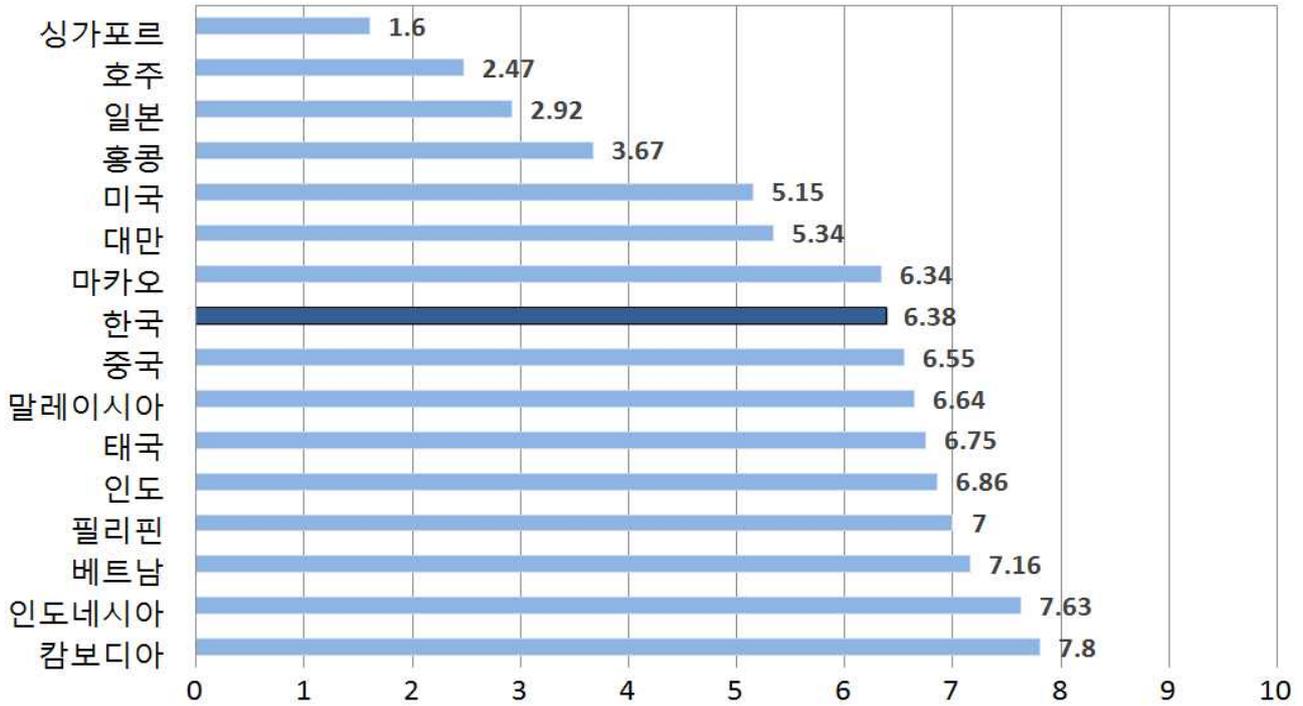
- 전년 대비 순위는 유지되었으나, 점수가 악화되어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산정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6개국 평균 점수가 개선('16년 6.25점 → '17년 5.90점)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부패 수준 및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부정청탁 근절 및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
- 주한외국인 CEO 대상 정책설명회, IMD(국제경영개발원) 등 국제 평가기관 대상 설명회, 반부패정책 동향자료 주기적 제공 등 추진

< 2017년 PERC 점수 현황 >



※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고 인식

< 최근 10년간 PERC 점수 현황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싱가포르	1.13	0.92	0.99	0.37	0.67	0.74	1.60	1.33	1.67	1.60
호주	0.98	1.40	1.47	1.39	1.28	2.35	2.55	2.61	2.67	2.47
일본	2.25	2.63	2.63	1.90	1.90	2.35	2.08	1.55	3.00	2.92
홍콩	1.80	1.74	1.75	1.10	2.64	3.77	2.95	3.17	3.40	3.67
미국	1.83	2.71	1.89	1.39	2.59	3.82	3.50	4.59	4.61	5.15
대만	6.55	5.85	5.62	5.65	5.45	5.36	5.31	5.00	6.08	5.34
마카오	3.30	3.75	5.71	4.68	2.85	4.23	3.65	4.58	6.15	6.34
한국	5.65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6.38
중국	7.98	7.30	6.70	7.93	7.00	7.79	7.10	6.98	7.50	6.55
말레이시아	6.37	7.00	6.05	5.70	5.59	5.38	5.25	4.96	6.95	6.64
태국	8.00	6.76	7.33	7.55	6.57	6.83	8.25	6.88	7.67	6.75
인도	7.25	6.50	8.23	8.67	8.75	8.95	9.15	8.01	8.13	6.86
필리핀	9.00	7.68	8.25	8.90	9.35	8.28	7.85	7.43	7.05	7.00
베트남	7.75	7.40	7.13	8.30	7.75	8.13	8.73	8.24	7.92	7.16
인도네시아	7.98	7.69	9.07	9.25	8.50	8.83	8.85	8.09	8.00	7.63
캄보디아	8.50	8.10	8.30	9.27	6.83	7.84	8.00	7.75	7.75	7.80